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의료기기 산업, 세계시장 규모와
국가별 성장 추이**

FOCUS

CONTENTS

01

포커스

의료기기 산업, 세계시장 규모와 국가별 성장 추이 1

02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Pfizer, 2분기 실적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4

미국 Concert Pharmaceuticals, 탈모치료제 FDA 승인 요청 계획 4

미국 Proven Skincare, 캐나다에 이어 EU와 영국에 진출 5

영국 유전체 Database, 희귀질환 진단 개선에 활용 5

일본, 의약품시장 '21년 전년대비 5.4% 성장 6

중국, '22년 의료 SaaS 산업 동향 분석 6

아시아, 재생의료 제품 시장 '22년 100억 엔 돌파 전망 7

제네릭 제약업체, 최근 상위 10개사 실적 비교 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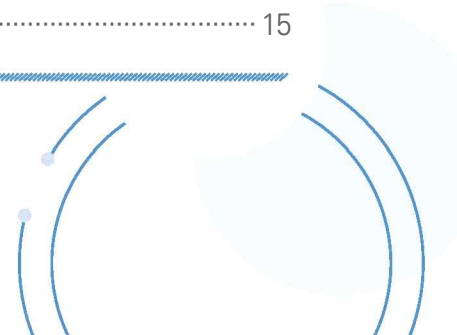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미국 CMS, '23년 메디케어 Part D 월평균 보험료 1.8% 감소 예상	8
영국 DHSC, 여성건강전략 의회에 제출	8
독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 제공	9
중국, 보건의료 생태계 2030 전망	9
인도, 해외 의료관광객을 위한 보험상품 출시	10
태국 Ever Healthcare, 글로벌 의료관광 플랫폼 출시	10
말레이시아, 카타르와 아제르바이잔과 의료관광 협력 강화	11
헬스케어 산업, 글로벌 차원의 인력 양성이 필요	11

0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Viz.ai, Hyperfine과 파트너십 구축 발표	12
미국 Wild.ai, 여성의 헬스케어를 위해 AI를 활용	12
미국 Verily 등, 부정맥 모니터링 스마트워치의 FDA 승인 획득	13
영국 Cera Care, 3억 1천만 유로 투자자금 조달에 성공	13
일본, 9월부터 고혈압 치료 지원 앱에 보험 적용	14
인도네시아,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플랫폼 출시	14
제약산업, 신약 개발 AI 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15
웨어러블, 발열·스트레스·악몽 등을 모니터링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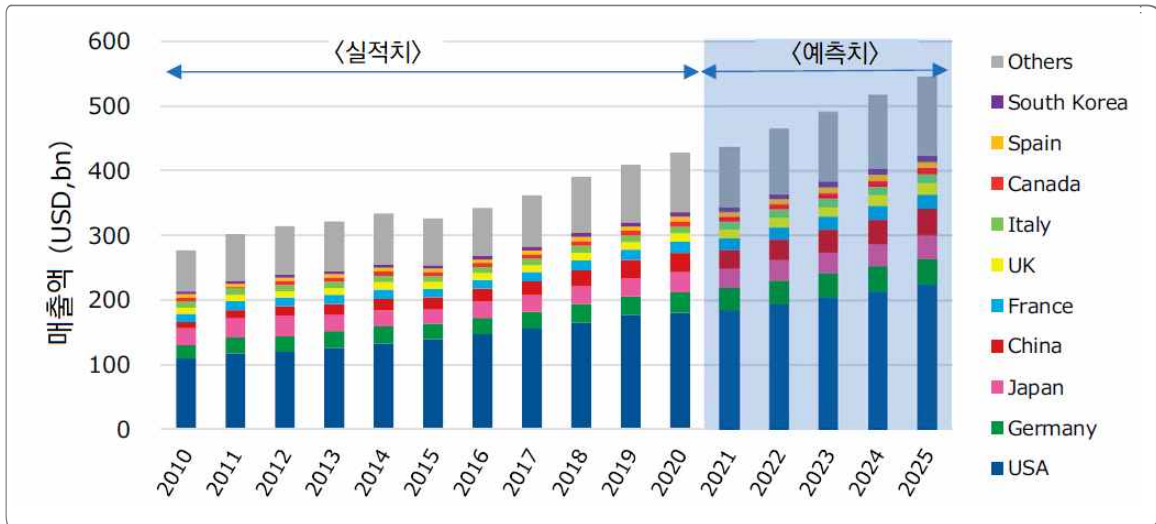
의료기기 산업, 세계시장 규모와 국가별 성장 추이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할 때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별로 법규제와 보험제도가 다르고 체온계나 콘택트렌즈부터 전문의가 다루는 인공호흡기, 수술로봇, 프로그램 의료기기까지 제품군이 다양하고 이들이 의료기기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어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본 자료는 일본의 약사공업생산동태통계연보, '22년 6월말 기준 NEDO의 성과보고서, Fitch Solutions 보고서 등 각국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규모 및 제품군별 포지션을 가시화

■ '2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4,27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10년~'20년 연평균 성장률(이하 CAGR)은 4.5%로 연도별로 성장 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규모는 순조롭게 확대

- Fitch Solutions社가 발간하고 있는 '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orecasts(이하 Fitch 보고서)'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시장조사 보고서로 동사는 10년 전부터 5개 지역 75개국 의료기기 시장으로 특화한 데이터를 수집
- 또한 각국의 인구, 의료비, GDP 등의 기본정보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Harmonized Systems(HS) 코드를 바탕으로 한 49개 카테고리별 의료기기 매출액 등 과거 5년간의 실적과 향후 5년간의 전망치 총 10년 분량의 데이터를 Fitch보고서에 게재
- Fitch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1,790억 9,000만 달러(同 CAGR 5.1%)규모를 기록한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10년부터 변함없이 최대 규모를 유지
- 한편 '19년 2위를 기록했던 일본과 같은 해 3위였던 독일은 '20년에는 순위가 역전되며 독일이 2위(320억 1,000만 달러 同 CAGR 4.4%)를, 일본이 3위(310억 6,000만 달러 同 CAGR 2.0%)를 기록
- 또한 4위를 기록한 중국시장(290억 1,000만 달러 同 CAGR 11.9%)은 최근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23년에는 일본, '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
- 다음은 프랑스(170억 2,000만 달러 同 CAGR 2.8%), 영국(130억 달러 同 CAGR 3.3%), 이탈리아(100억 6,000만 달러 同 CAGR 0.9%), 캐나다(80억 달러 同 CAGR 3.4%), 스페인(70억 3,000만 달러 同 CAGR 3.6%), 한국(60억 7,000만 달러 同 CAGR 4.7%)순
- 이들 상위 10개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합하면 약 3,360억 달러로 전체의 78.5%(同 CAGR 4.6%)를 차지

■ 지난 10년간('10~'2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추이 ■



■ 이처럼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큰 국가들은 전체 인구나 GDP·의료비 등이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GDP, 의료비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의료기기 전체 및 카테고리별 순위를 총액과 국민 1인당(Per Capita) 액수를 비교해 상위 5위까지 정리

- 일단 인구 수 상위 5개국을 보면 1위 중국, 2위 인도는 카테고리별 총액에서는 순위에 든 항목이 여러 개지만 국민 1인당 액수는 순위권 밖에 있고 특히 인도는 ‘진단·화상’ 분야의 MRI, 의료용 α , β , γ 선 장치, 의료용 X선 필름, X선관 카테고리의 각 총액만 5위권 내에 있는 것이 인상적
- 인구 3위 미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총액, 국민 1인당 액수 모두 순위권 내에 있으며 4위와 5위인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은 총액과 국민 1인당 액수 모두 순위권 밖에 위치
- 한편 국민 1인당 의료비를 보면 미국에 이어 2위가 스위스,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으며, 국민 1인당 의료기기 시장은 스위스가 1위였고 다음은 미국, 독일, 호주, 벨기에로 역시 유럽권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 국민 1인당 GDP, 의료기기 시장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의료비에서 2위를 기록한 스위스를 주목해 보면 모든 의료기기 분야의 여러 카테고리에서 국민 1인당 액수가 상위에 랭크하고 있지만 특히 소모품, 치과용품, 환자보조기구 분야는 여러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록
- 한편 ‘진단·화상’ ‘정형외과용 기구 및 골절치료기구’ 분야에서는 총액, 국민 1인당 액수 모두 미국이 1위를 기록했고 국민 1인당 의료비에서 1위, 의료기기 시장에서 2위 규모를 자랑
- 일본은 인구 순위 11위지만 GDP, 의료비, 의료기기 시장 총액에서 모두 3위에 있고 GDP에 대한 의료비 순위도 6위로 세계적으로는 경제·의료 모두 비교적 선진적 지위를 유지
- 각 의료기기 총액은 ‘치과용품’ ‘정형외과용 기구 및 골절치료기구’ 분야에서 2위, ‘소모품’

‘환자보조기구’ ‘기타’ 분야에서 3위로 모두 상위에 있는 반면 국민 1인당 액수에서는 ‘진단·화상’ 분야 외에는 대부분 6위권 밖에 위치

■ '20년 세계 의료비 및 의료기기 시장 순위 ■

기본정보	세계시장	순위				
		1	2	3	4	5
인구 (백만 명)	6,444.37	중국 1,439.32	인도 1,380.00	미국 331.00	인도네시아 273.52	파키스탄 220.89
의료비 (USD, bn)	9,130.99	미국 3,845.65	중국 982.57	일본 629.53	독일 489.59	프랑스 336.61
의료기기 시장 (USD, mn)	427,413.44	미국 179,858.93	독일 32,139.27	일본 31,619.82	중국 29,103.33	프랑스 17,181.50
의료기기 시장/사 (USD)	66.32	스위스 587.44	미국 543.38	독일 383.60	오스트리아 338.53	벨기에 336.60

■ 일본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성과보고서('20년판)*를 바탕으로 일본, 유럽, 미국 기업들의 38개 제품군 의료기기에 대한 '19년도 시장점유율을 보면 미국기업이 59.9%, 유럽과 일본 기업이 각각 25.5%와 13.4%를 기록

* NEDO는 신산업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사업 가운데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대표적 제품군(최종제품, 중간제품, 부재·소재 등을 포함한 약 1,000개 품목)에 대해 세계시장 규모와 기업 국적별 매출액 점유율을 조사하고 성과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도 '12년 이후 데이터를 '17년~'20년 4년분의 성과보고서로 공개

- 일본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알려진 화상진단계 MRI, CT, 초음파 화상진단장치 제품들은 사실 유럽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세계시장 규모가 큰 '인공 슬관절' '인공 고관절' '스텐트' 등의 제품군
- 이미 미국, 유럽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군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기 쉽지 않겠지만 세계시장 규모가 큰 만큼 점유율이 0.1%라도 상승하면 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세계시장 규모가 작은 제품군이면서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면 기대는 크지 않지만 '입자선 치료장치' '수술용 로봇' 등 향후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은 시장 자체를 개척하며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미국, 유럽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
- 한편 세계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MPO Magazine이 공표하는 'The 2021 MPO Top30 Medical Device Companies Report'를 통해 '20년 Top30 의료기기 기업을 확인
- Top30 가운데 17개사가 미국기업으로 역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을 미국이 석권하고 있으며 일본 4개사, 독일 3개사를 제외하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웨덴 기업은 모두 1곳만 포함

[医療機器政策調査研究所, 2022.SUMMER;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2.06.2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Pfizer, 2분기 실적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 미국의 대형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2년 2분기에 COVID-19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의 매출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277억 달러 규모의 실적 달성

- Pfizer의 이러한 기록적인 실적은 COVID-19 백신 88억 달러와 COVID-19 경구용 치료제 매출 81억 달러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Pfizer의 실적은 당초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분기 실적은 이전 예측치 257억 달러를 초과한 수치
- Pfizer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9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Pfizer는 '22년 COVID-19 백신 매출액 320억 달러와 Paxlovid 매출액 220억 달러의 예측치를 유지
- 또한 Pfizer가 예측한 '22년 전체 매출 및 순이익 가이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1,020억 달러, 주당 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은 6.30~6.45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

[CNBC, 2022.07.28.; BARRON'S, 2022.07.28.]

미국 Concert Pharmaceuticals, 탈모치료제 FDA 승인 요청 계획

■ 미국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 본사를 둔 소규모 생명공학 회사인 콘서트파마슈티컬(Concert Pharmaceuticals)은 임상3상 시험 성공을 보고했으며, 향후 실험용 탈모 치료제에 대하여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

- Concert는 '22년 중 CTP-543이라는 약품에 대한 FDA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일라이릴리(Eli Lilly)社 및 인사이트(Incyte)社와 탈모 치료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
- 일라이릴리(Eli Lilly) 및 인사이트(Incyte)는 '22년 6월 탈모를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증(alopecia areata)의 체계적 치료제(systemic therapy)를 개발하여 FDA 승인을 획득
 - * 원형 탈모는 신체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모낭을 공격해 탈모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을 말하며, 의학에서 체계적 치료(systemic therapy)는 항암치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치료에서 국부지역이 아니라 몸 전체를 겨냥한 치료를 지칭
- Concert의 약물과 Lilly 및 Incyte의 치료제인 올리미언트(Olumiant)는 유사하게 작용하며, 다양한 면역장애에 관여하는 야누스키아제(Janus kinase, JAK)로 알려진 단백질을 차단하고 있으며, Pfizer도 JAK 억제제를 개발 중이며 최근 미국, 영국 및 유럽에서 규제당국 승인을 신청

[Biopharma Dive, 2022.08.01.; Endpoints News, 2022.08.01.]

미국 Proven Skincare, 캐나다에 이어 EU와 영국에 진출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data) 기술을 결합하여, 소비자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북미 브랜드 프로벤스킨케어(Proven Skincare)社は '21년 캐나다 진출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영국 진출을 공식화

- '17년에 설립되고 '19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Proven Skincare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맞춤형 스킨케어 브랜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8년에 MIT 인공지능 기술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22년 Glossy Beauty 어워드에서 최고 기술 적용 부문을 수상
- Proven은 EU에서 지역별로 광범한 환경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AI기술로 분석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영국 시장에 진출
- Proven이 추진하고 있는 스킨케어게놈프로젝트(Skin Genome Project)는 2만여 개에 달하는 스킨케어 제품유효 성분 DB, 10만 개 이상의 개별 제품 정보, 2천만 명 이상의 제품 사용 후기, 4천 개 이상의 학술 논문, EU 전역의 수질 경도, 습도, 자외선 지수 데이터 DB등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예정

[Premium Beauty News, 2022.07.27.; happi, 2022.07.19.]

영국 유전체 Database, 희귀질환 진단 개선에 활용

■ 희귀질환 진단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과학자 그룹은 영국의 '게놈잉글랜드(Genomics England)'가 보유하고 있는 희귀질환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제안

-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 질병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변이 요소를 결정하는 표준과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과정에서 영국 Genomics England의 희귀병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

* Genomics England는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 연구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 정부 소유의 연구개발 전문 기업

- 희귀질환 진단 글로벌 가이드라인 작업에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전문가들과 영국, 미국 및 호주의 의학 및 헬스케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 이번에 제시될 가이드라인 확대 방안을 통해 전장유전체 염기서열(whole-genome sequence, WGS)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WGS는 유전체에 존재하는 변이나 복제수의 변화, 구조적 이상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

[Medical Express, 2022.07.19.; Genomics England, 2022.07.19.]

일본, 의약품시장 '21년 전년대비 5.4% 성장

■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후지경제(富士経済)는 '21년 의료용 의약품 시장이 백신 판매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5.4% 성장한 9조 111억 엔(판매처 출하기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 COVID-19 확산으로 진료를 미뤘던 '20년 동 시장은 8조 5,497억 엔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한 반면, '22년은 사람들이 병원을 다시 찾고 COVID-19 백신과 치료제 판매액도 증가하겠지만 '21년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0.8% 증가한 약 9조 8,000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23년 이후 COVID-19 백신과 치료제 판매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년 동 시장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약 8조 7,500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
- 후지경제는 '30년 질환별 시장규모도 예측했는데 1위는 종양학(oncology) 영역·고형암 치료제 시장으로 '30년 시장규모는 1조 5,753억 엔('19년 대비 32% 증가·약 3,800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
- 2위는 CNS영역 질환치료제 시장으로 '21년은 3위였지만 앞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관련 신약 출시에 힘입어 '30년 1조 3,296억 엔('19년 대비 24% 증가·약 2,500억 엔)에 이를 전망

[믹스, 2022.07.25.; 薬事日報, 2022.04.25.]

중국, '22년 의료 SaaS 산업 동향 분석

■ 중국 36Kr연구원(36氪研究院)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정보화 효율과 협업에 대한 의료업계 시장 주체의 새로운 수요들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야 운영 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현황을 소개

- 의료 SaaS는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로 저비용·고확장성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의료기관, 의료인력 및 환자 간 상호 연결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
- (시장규모) '19년 중국 의료 SaaS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2.11% 상승하여 27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20년 37억 위안, '21년 56억 위안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1~'25년 CAGR은 약 30%에 이르러 '23년에는 101억 위안, '25년에는 177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응용분야) △병원: 임상 정보 관리·병원 운영 관리·의료 협업 등에서 활용되며 병원 자체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SaaS 기능 활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진료기관 구축 등을 지원 △제약: 신약 개발·의약품 마케팅 효율 증대 △의약품 판매: 처방전 발급·약국 운영 등에 활용
- (발전방향) 의료 SaaS 기업은 데이터 접근·데이터 분리·보안 등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고, 의료 SaaS 제품과 AI, 빅데이터·IoT 등 기술간 통합이 이루어져 스마트화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소도시·격오지까지 보편화되어 의료서비스 문제 해소

[36氪研究院, 2022.07.14.; iResearch, 2021.12.29.]

아시아, 재생의료 제품 시장 '22년 100억 엔 돌파 전망

■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5개국 재생의료 제품 시장이 '22년 100억 엔을 돌파하고 오는 '30년 662억 엔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인 후지경제가 전망

- 이들 5개국 재생의료 제품 시장은 '20년 62억 엔, '21년 79억 엔을 기록한 후 '22년에는 114억 엔, '30년에는 662억 엔으로 21년 실적 대비 8.4배 규모로 성장할 전망
- '21년 재생의료 제품 시장은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시트이식형 재생의료제품(피부, 심근, 각막 등)이 성장했고 CAR-T세포 제품도 치료시설 수 증가와 신약이 승인에 힘입어 성장
- '19년 10억 엔을 기록한 CAR-T세포 제품 시장은 '21년 17억 엔을 기록한데 이어 오는 '30년에는 320억 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중국에서도 바이오 벤처와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CAR-T세포요법 관련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세포 치료형 재생의료 제품 시장규모도 '21년 37억 엔에서 '30년에는 262억 엔 규모에 이를 전망으로 동 시장은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세포성 의약품(세포치료제품·세포제제)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전자 치료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믹스, 2022.06.29.; 東京新聞, 2022.07.17.]

제네릭 제약업체, 최근 상위 10개사 실적 비교

■ 3년 연속('18~'20년) 동안 전 세계 제네릭 매출은 740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독일 마케팅 및 소비자 데이터 조사 회사인 스타티스타(Statista)는 현재 제네릭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6년까지 9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제네릭 제약업체 상위 10개사 실적 ('21년) ■

회사	국가(본사소재지)	'21년 (10억 달러)	'20년 (10억 달러)	증가율(%)
Teva	이스라엘(Petah Tikva)	8.99	9.31	-3.0%
Novartis' Sandoz	스위스(Basel)	7.50	7.70	-2.6%
Viartis	미국(Pittsburgh)	5.63	5.29	+6.0%
Sun Pharma	인도(Mumbai)	4.64	4.52	+3.0%
Fresenius Kabi	독일(Bad Homburg)	3.72	3.58	+4.0%
Aurobindo	인도(Hyderabad)	3.18	2.97	+7.0%
Cipla	인도(Mumbai)	2.65	2.47	+7.3%
Aspen Pharmacare	남아공(Durban)	2.20	1.96	+12.0%
Dr. Reddy's Laboratories	인도(Hyderabad)	2.17	1.92	+11.5%
Hikma	영국(London)	1.88	1.73	+9.0%

[Fierce Pharma, 2022.07.18.; The Motley Fool, 2022.07.27.]



의료서비스

미국 CMS, '23년 메디케어 Part D 월평균 보험료 1.8% 감소 예상

■ 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23년 메디케어 기본 Part D의 월평균 보험료가 '22년 32.08달러에서 31.50달러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CMS는 제출된 보험플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된 Part D의 예상 기본 월평균 보험료를 매년 발표하여 수혜자가 다가오는 연도에 대한 보험플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어 공개 등록 기간 이전에 전반적인 Part D 보험료 추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Medicare 파트 D 프로그램은 Medicare 가입자가 오리지널 및 제네릭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지원

- '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장을 위한 Medicare 공개 등록은 '22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CMS는 '22년 9월에 '23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MA) 및 Part D 플랜에 대한 '23년 보험료 및 비용 부담 정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

[CMS.gov, 2022.07.29.]

영국 DHSC, 여성건강전략 의회에 제출

■ '22년 7월 20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장관은 영국 여성 대상 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을 의회에 제출

- 여성건강전략은 '21년 12월에 발표된 '영국 여성건강전략에 대한 비전(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영국의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고 건강 및 의료시스템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 건강전략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하여 △여성 의견 수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불평등 해소 △더 나은 정보와 교육 △직장 내 건강의 영향에 대한 이해 △연구 지원, 증거 기반 개선, 질 높은 데이터 등 6가지 장기 계획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 여성건강전략은 △월경 건강 및 부인과 질환 △난임, 임신, 유산 및 산후 지원 △갱년기 △정신건강과 웰빙 △암 △여성고여아에 대한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노화와 장기질환 등에 대한 증거기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GOV.UK, 2022.07.21.]

독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 제공

■ 독일은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외상센터 건립 △의수족 기증 △독일 의사 파견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할 계획

-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독일은 △보철물 공급 지원 △우크라이나에 200명의 의사 배치 △화상 치료 교육을 실시 △우크라이나의 일부 병원을 원격 의료서비스에 연결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 독일 최대의 의수족 제조업체인 오토복(Ottobock)社は 보건부와 협의하여 이동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보철물을 생산 및 제조하며, 우크라이나의 정형외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지원을 제공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24.)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에 약 290여차례의 공격을 감행
-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약 1억 유로(미화 1억 576만 달러) 상당의 의료지원을 제공했으며 독일의 의료산업 관련 기관들도 1억 유로 이상을 기부

[LaingBuisson, 2022.07.04.; DW, 2022.06.10.]

중국, 보건의료 생태계 2030 전망

■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社は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중국 보건의료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혁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30년까지 진행될 중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메가트렌드 및 발전 시나리오 분석한 보고서 발표

- 현재 중국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진단 및 1차 진료의 낮은 역량, 자금 부족, 수요와 공급 간 격차 확대, 지역별 의료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격차 확대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혁신이 시급한 상황
- 중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메가트렌드는 △공공 및 민간 헬스케어 인프라는 증충화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헬스케어 부문의 펀딩 모델은 다양화되고, 복지 모델과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지역 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로 질병 및 보건 상황이 급변하고,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소비자와 환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에 의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확산될 전망
- 이러한 메가트렌드 하에서 중국 헬스케어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영화된 헬스케어 인프라 확대 △정밀 헬스케어 혁신의 확대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시스템 발전 △스마트 공공 헬스케어 등 4가지가 제시

[Deloitte, 2022.06.23.; Healthcare Science, 2022.07.26.]

인도, 해외 의료관광객을 위한 보험상품 출시

■ 인도 보험회사인 바자즈알리안츠(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社は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인도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보험을 출시

- 해외 의료관광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하는 이 보험 상품을 출시한 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는 인도의 금융회사 바자즈핀서브(Bajaj FinServ)와 독일계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의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며 Bajaj FinServ가 74%의 지분을 보유
- 이 상품의 설계에는 전 세계 195개 국가에서 1백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보유한 Allianz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기술 플랫폼 역량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짐
- 인도아대륙(印度亞大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의 나라가 위치한 지역)에서 해외에서 상당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있으며, 인도인들이 치료를 위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및 두바이에 의료관광을 가는 추세가 확대
- 이번에 출시된 해외 의료관광 상품은 자산이 많거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의 고소득 인도인, 유학생, 해외에 있는 부모를 방문하는 어린이 및 해외여행을 하는 인도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LaingBuisson, 2022.08.03.; Mint, 2022.06.29.]

태국 Ever Healthcare, 글로벌 의료관광 플랫폼 출시

■ 태국에 본사를 둔 에버헬스케어(Ever Healthcare)社は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경제성·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의료관광 플랫폼을 출시

- 플랫폼상의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 옵션이 제공되고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높은 수준의 공공 클리닉 및 병원에서 제공하는 1,000개 이상의 치료 방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설계
-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치료법을 비교하고 상담 및 예약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에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터링 도구와 지능형 AI/머신러닝 도구를 보유
- Ever Healthcare는 태국, 미얀마, 멕시코,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직원을 두고 있으며, 각 의료 목적지의 세부 정보, 사진, 인증, 의사 전문 분야 및 리뷰 확인이 가능
- 평균적으로 환자가 결정하기 전에 열 개가 넘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치료에 대한 스무 개의 기사를 읽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Ever Healthcare가 제공하는 선별된 병원 및 클리닉 목록을 활용할 경우 수백 개의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전망

[LaingBuisson, 2022.07.14.; News Channel Nebraska, 2022.06.13.]

말레이시아, 카타르와 아제르바이잔과 의료관광 협력 강화

■ 말레이시아 재무부 산하 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는 의료관광 개발 및 관련 대상 국가 네트워크 확대하기 위해 카타르 및 아제르바이잔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

- 카타르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카타르의 의료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MHTC와 최근 지중해빈혈(Thalassaemia) 환자를 치료하는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에 초점을 맞춘 웨비나를 개최
- 또한, 말레이시아 관광청(Tourism Malaysia)은 '22년 5월 카타르 수도 도하(Doha)에서 말레이시아의 여행사, 호텔, 의료관광 업체와 현지인들을 위한 로드쇼를 개최
- MHTC의 또 다른 대상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으로 해당 국가 의료관광객 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자, 특히 사립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모색
- 말레이시아와 같은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관광청(Azerbaijan Tourism Board)은 말레이시아로부터 관광 및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전수받기를 희망

[LaingBuisson, 2022.08.03.; AGADIR-Group, 2022.08.03.]

헬스케어 산업, 글로벌 차원의 인력 양성이 필요

■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社は 헬스케어 생태계에서의 인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전 세계적으로 의사, 간호사, 간병인, 치과 관련 인력과 제약 부문의 인력을 포함하는 공공의료 부문의 인력 부족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약 4,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 충원 △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재구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
- 따라서 △보건의료 인력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인력 양성 체계의 도입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특정 영역의 보건의료 인력 고용 및 업스킬링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
- 또한 △지속적인 보건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정책과 프로토콜 및 자원 활용 방법의 수립 △공공의료 시스템에 적용되는 투명하고 전략적인 정책 과정의 구축이 필요

[McKinsey&Company, 2022.07.26.; WHO, 2022.05.17.]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Viz.ai, Hyperfine과 파트너십 구축 발표

■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하고 있는 AI 기반 영상진단기업인 비즈AI(Viz.ai)社は 의료기기업체인 하이퍼파인(Hyperfine)社와 협력하여 첨단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위급한 환자들에게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의료장비와 알고리즘을 출시

- Viz.ai는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와 담당 의사가 직접 소통하고 진료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 Viz LVO를 개발
- Hyperfine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환자의 병상에서 직접 MRI 뇌영상을 찍어서 전송할 수 있는 숲(Swoop)이라는 의료기기를 개발
- 이번 양 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뇌질환 관련 응급 병동에서는 진료 승인 시간이 줄어들고 MRI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며,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의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Mass Device, 2022.07.26.; Fierce Biotech, 2022.07.26]

미국 Wild.ai, 여성의 헬스케어를 위해 AI를 활용

■ 미국 와일드AI(Wild.ai)社は 웨어러블을 통한 입력과 수동 입력이 모두 가능한 펌테크(Femtech) 앱을 1년전에 출시하였으며, 활동 여성의 헬스케어 부족을 채우고 생리학적 특성에 맞는 훈련, 회복 및 영양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활력과 성과를 분석

- 사용자는 수면 지표, 스트레스 수준, 월경 증상, 소화 문제 및 웨어러블 장치에서 가져온 외부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매일 확인하고,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 준비상태점수(readiness score)가 만들어지고 Wild.ai는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목표 권장 사항의 체크리스트와 부정적인 증상 예측을 생성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500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앱은 인간 코치처럼 피드백 루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권고사항들을 학습하고 최적화하고 있으며, Wild.ai는 현재 여성의 다양한 생애주기, 연령 및 민족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펌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의학 연구 및 임상 연구의 40%만이 여성의 신체에 대해 수행되며, 스포츠 과학 연구의 경우 그 수치가 3%로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연구에서 25세에서 30세 사이의 미국 기반 백인 여성 풀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성별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어, 여성 건강에 대한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이 확대

[Fortune, 2022.08.03.; McKinsey&Company, 2022.02.14.]

미국 Verily 등, 부정맥 모니터링 스마트워치의 FDA 승인 획득

■ 구글이 속한 알파벳(Alphabet) 그룹의 자회사인 베릴리(Verily)사와 아이리듬테크놀로지(iRhythm Technologies)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부정맥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된 스마트워치인 지오워치(Zio Watch)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승인을 획득

- Zio Watch는 부정맥 신호를 감지하는 AI 알고리즘인 제우스(Zio ECG Utilization Software, ZEUS)를 내장하고 있으며, 양사는 장기간에 걸쳐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
- 이 스마트워치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의 심방세동 여부를 탐지하고 유형화하여 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주며, 축적된 데이터를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보고서 형태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축
- FDA로부터 스마트 워치 관련 승인을 받은 iRhythm은 심장병 모니터링 기기 제조회사로, '19년부터 Verily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심방세동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출시 예정인 Zio Watch는 다양한 심장 모니터링 기능을 가진 Apple watch와 경쟁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Medtech Dive, 2022.07.25.; Medical Device Network, 2022.07.25.]

영국 Cera Care, 3억 1천만 유로 투자자금 조달에 성공

■ 디지털 재택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스타트업 기업인 영국의 세라케어(Cera Care)는 최근 3억 1천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번의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고령의 취약계층 환자들이 자신의 주택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헬스케어 부문은 유럽의 전역에서 전례없는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
- 병원의 병상 밀집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며,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택 헬스케어가 부상되는 가운데, Cera Care는 대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
- 직접 투자와 대출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금 유치에 성공한 Cera Care는 유럽에서 디지털 재택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 이번 투자유치는 기존 Cera Care의 투자자 중의 하나인 Kairos HQ가 주도했으며, Vanderbilt 대학 재단, Evolve Healthcare Partners, Schroders Capital, Jane Street Capital, Yabeo Capital, Squarepoint Capital, Guinness Asset Management 등의 금융기관과 벤처 투자자들이 참여

[Eu-Startups, 2022.08.04.; PYMNTS, 2022.08.04.]

일본, 9월부터 고혈압 치료 지원 앱에 보험 적용

■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는 8월 3일 고혈압 치료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용 앱을 공적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승인

- 일본에서 치료용 앱에 보험이 적용된 것은 '20년 12월 니코틴 중독 치료용 앱인 'CureApp SC'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고혈압 치료 지원 앱은 '22년 9월부터 보험이 적용될 전망
- 스타트업 큐어앱(CureApp)사가 개발한 'CureApp HT 고혈압 치료보조 앱'은 지난 4월말 후생노동성의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
- 고혈압 치료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저염식,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도하지만 환자가 지시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동 앱은 환자별로 개별화된 치료 가이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의사는 입력된 혈압이나 행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목표치 제시 등 지도에 나서는데 첫 회 진료비는 9,700엔 2회차 이후에는 8,300엔이며 환자가 30%만 부담하는 경우는 각각 2,910엔과 2,490엔이 될 전망

[読売新聞, 2022.08.04.; CNET Japan, 2022.04.27.]

인도네시아,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플랫폼 출시

■ 인도네시아 보건부(Health Ministry)는 '22년 말까지 약 8,000개의 의료 시설을 통합 보건 플랫폼인 사투세햇(SATUSEHAT)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One Healthy'라는 의미의 사투세햇(SATUSEHAT) 플랫폼을 통해 △일차 서비스 변환 △추천 서비스 변환 △건강 탄력성 시스템 변환 △건강 금융 시스템 변환 △보건 부문의 인적 자원 변환 등 인도네시아 의료시스템의 변환을 구현하고 지원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디지털 헬스 전환을 통해 △데이터 통합 △앱 단순화△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여 단일 국가 건강 데이터를 생성하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 인프라 모델을 채택
- 환자는 다른 병원을 방문할 경우 물리적 의료 기록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이 기록은 플랫폼에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고 공식 COVID-19 보건·추적 앱인 'PeduliLindungi'와 통합
- 이 플랫폼은 알파 테스트 단계에서 41개의 정부 소유 병원에서 테스트되었으며 베타 단계 시험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31개 기관이 참여 중

[Healthcare IT News, 2022.08.08.; SUARA Patani, 2022.07.26.]

제약산업, 신약 개발 AI 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제약 산업은 약물 발견 및 개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AI 기술에 대한 투자는 '25년 3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

- AI는 새로운 약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컴퓨터기반신약디자인(Computer-Aided Drug Design, CADD)'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
 - * CADD란 신약 개발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기반 신약 디자인 과정으로, 화학물의 입체 구조 예측, 의약품 활성, 독성 예측 등 다양한 단계에 적용되고 있는 융합 학문적 기술
- AI 기반 약물 발견 전략적 제휴의 수는 '15년 10개에서 '21년 105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영국 AI 스타트업 베네볼런트AI(BenevolentAI), 엑스사이언티아(Exscientia) 및 인실리코메디신(Insilico Medicine)과 같은 회사와의 제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
-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약이 시장에 출시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년에서 18년 사이이며 평균 비용은 약 26억 달러로 추정되지만, 유전체학 연구의 경우 후보 물질의 10%만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어 AI 투자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수요가 확대

[Pharmaporum, 2022.07.08.; BioSpace, 2022.08.03.]

웨어러블, 발열·스트레스·악몽 등을 모니터링

■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사에 따르면, '22년 전 세계적으로 3억 2천만 대의 소비자 건강 및 웰빙 웨어러블 기기가 출하될 것이며 '24년에는 그 수치가 거의 4억 4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발열과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악몽에서 깨우는 앱까지 등장

- 애플워치(Apple Watch)는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하고 낙상을 감지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중요한 의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며 Apple사는 Series 8 모델에 체온 감지 기능을 추가하여 열이 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조만간 제공될 전망
- 사용자가 잠자는 동안 착용하도록 설계된 나이트웨어(NightWare)는 Apple Watch의 센서를 사용하여 잠자는 동안 착용자의 신체 움직임과 심박수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악몽을 겪고 있음을 감지하면 장치가 부드럽게 진동하여 사용자를 깨우지 않고 악몽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담당
- '세계 최초의 Awareable'로 마케팅되는 노워치(Nowatch)사의 스마트워치는 첨단 센서를 사용하여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를 예측
 - * 전자 회사 필립스(Philips)와 협력하여 개발한 이 장치는 땀샘과 신경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피부전도도(electrodermal activity, EDA)를 측정

[Euro News, 2022.07.11.; CISION, 2022.07.15.]